

윤석화, 무대에서 연기 인생 돌아본다

아카이브 공연 '자화상'

배우 윤석화가 자신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소극장 산울림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윤석화 아카이브 '자화상 I'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자화상'은 윤석화가 그동안 소극장 산울림에서 출연했던 연극 중 대표작의 명장면들로 재구성하는 작품으로, 그는 이 공연에서 연출, 구성, 배우로 참여한다.

윤석화는 첫 산울림 무대였던 '하나를 위한 이종주', 임영웅 연출과의 첫 작업이었던 '목소리', 장기 공연 신화를 이끈 '말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번 공연의 대표작으로 선택했다.

윤석화는 대표작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재해석해 연기, 노래, 안무 등을 통해 보

여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그의 과거 및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도 연극적으로 활용된다.

윤석화의 오랜 팬으로 우정을 지속해온 예술가 조덕현은 현정 작품 '윤석화 오마주'를 제작해 무대에서 선보인다.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꽃밭'으로 데뷔했다. '하나를 위한 이종주', '목소리', '말에게 보내는 편지', '신의 아그네스', '명성황후', '덕혜옹주', '마스터 클래스', '나, 김수임', '위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 연극계의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해왔다.

소극장 산울림에 따르면 '자화상'은 윤석화 아카이브의 첫 번째 작품으로, 윤석화는 앞으로 아카이브 공연을 2개 더 선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뮤직비디오 캡처.

/연합뉴스

리사 뮤직비디오 대히트에 태국민·정부 '반색'

석성·전통 세공품 등장 호응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태국 국민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반색하고 있다.

리사가 뮤직비디오에 태국적인 요소를 담은 것이 반향이 컸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14일자 1면에 리사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실었다.

리사가 뮤직비디오에 북동부 부리람주의 파놈 룡 역사공원 내 석성(石城)과 태국 전통 세공품들을 등장시킨 것을 브라웃 총리도 태국 총리가 전날 칭찬했다는 내용이다.

브라웃 총리는 리사 뮤직비디오의 경이적인 성공을 뒤따라 창의 경제에서 가치를 더킬 수 있게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촉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태국 언론 왕분공차나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문화·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일컫는다.

브라웃 총리는 또 이번 현상이 태국 문화를 적용해 상품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 태국 산업과 디자인 업계의 자신감을 더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태국 언론 대변인은 덧붙였다.

파놈 룡 역사공원이 있는 부리람주의 시민들도 리사가 부리람주 대표적 관광 명소를 뮤직비디오에 등장시킨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보도했다.

역사공원 책임자인 배누왓 위사만도 파놈 룡 석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해 감사하다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최지우-차인표, 레스토랑 연다

JTBC '시고르 경양식' 내달 18일 첫방

JTBC는 다음달 18일 밤 9시 배우 최지우와 차인표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시고르 경양식'을 첫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레스토랑을 열고 스타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지우는 레스토랑 사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차인표는 헤드 셰프로서 활약한다.

배우 이장우와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요리부를 책임지고 개그맨 조세호와 배우 이수혁이 홀 서비스부를 맡는다.

특히 바닷가와 산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양식 요리가 시청자의 미각도 자극할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미술쟁 스타에 빛나는 국내 특급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셰프들이 나선다. /연합뉴스

발기부전 연기? "걱정 전혀 없었죠"

'유미업' 윤시운 "배우 생활은 자존감과 싸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패러디 장면 온라인서 화제



윤시운

"흥미로운 설정이면서도 그려내기 어려운 주제를 제작진과 작가님이 발칙하게 그려낸다고 하니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 공개된 웹드 오리지널 드라마 '유 레이즈 미 업' (이하 '유미업')에서 30대 초반의 발기부전 환자 도움식을 연기한 배우 윤시운(35)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작품에 참여한 계기를 밝혔다.

"대본 자체가 가진 재치와 진정성이 있었기에 걱정도 전혀 없었어요. 멋지고, 우스꽝스러움도, 나쁜 것도 다 표현해 낼 줄 아는 것이 배우잖아요."

그는 '유미업'에서 6년이 넘도록 무원 시험 준비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발기부전까지 앓게 된 도움식의

모습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그려냈다. "어설피고, 자존감이 낮고, 뭘 해도 헛똑똑이 같아서 용식이가 닮은 점이 많다"고 밝힌 윤시운은 "저는 용식이와는 달리 너무 황송하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기에 용식이를 대변했다고 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용식이의 실제 모델이 저와 친한 배우 형님이었다"며 "대본을 보면서 내 주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출연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 그분께 많이 물어보며 작품을 준비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유미업'은 발기부전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를 재치 있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비뇨기과에서 처음 재회한 첫사랑 이루다(안희연 분)에

게 전립선 검사를 받는 용식의 모습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패러디한 장면은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장면이 윤시운은 "최고의 명장면"이라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여나 오해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들을 귀엽게 봐주시고 흥미 있게 봐주셔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유미업'은 자존감을 채우는 이야기다. 용식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내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해 웃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됐다"고 덧붙였다.

"촬영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작품을 보지 않으면 어떻

게 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요. 그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던 그 대사가 너무 좋았죠."

배우로 살아오면서 자존감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그는 "결국 자존감이라는 건 나에게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이 작품을 통해 깨달았죠. 앞으로 작품을 선택하거나 연기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합뉴스

"마음 대변하는 세포들 보며 공감 얻어"

'유미의 세포들' 김고은 "리얼한 연기 주력했다" 안보현 "애니·실사 조합 신기"… 17일 티빙-tvN

머릿속 세포들을 의인화한 독특한 설정, 일상의 공감을 자아내는 캐릭터와 에피소드로 오랜 기간 사랑받은 이동건 작가의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드라마로 돌아온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tvN은 오는 17일 밤 10시 50분 '유미의 세포들'을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은 여러 세포가 주인공 김유미의 심리를 대변하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상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또 유미 역으로 배우 김고은이 나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김고은(30)은 최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촬영 전에는 원작 웹툰을 본 적은 없었는데 고민하던 중에 몰아보기를 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인물을 만나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다"며 "리얼한 연기에 주력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세포들이 마음을 대변해주는 설정인데, 어떤 이야기를 내뱉기 전에

수많은 생각이 스치는 과정을 세포들이 연기해주니까 공감도 많이 가고 어느 정도 통쾌하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유미는 자신의 사랑 앞에서 광장히 솔직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력적인 친구"라고 캐릭터에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김유미의 남자 구웅 역은 안보현(33)이 연기한다.

안보현은 "원작이 너무 유명해 알고 있었고, 드라마 제안을 받은 후 다시 정주행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작품에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조합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보현은 또 구웅과의 높은 싱크로율이 화제가 된 데 대해 "원작 보신 분이 워낙 많아 용이의 긴머리, 수염, 까무잡잡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저게 되네'라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고 웃었다.



배우 김고은(왼쪽)과 안보현.

/티빙 제작

이어 "또 용이의 매력은 순수함인데, 캐릭터와 나의 싱크로율이 99%"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연출을 맡은 이상엽 PD는 "원작 웹툰이 누적 조회 수가 32억 뷰였다. 너무 재밌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

가 지금 우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세포들까지 들어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연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16일 (음력 8월 10일)



48년생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60년생 믿었던 자식이 속을 썩인다. 72년생 뒷사람과 다투면 운세가 불리하다. 84년생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



49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 현실만 생각하자. 61년생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73년생 내 손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다. 85년생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다.



50년생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더 격정스럽다. 62년생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지 마라. 74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86년생 유행가는 가지 마라.



51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3년생 노력에 걸맞은 성과가 있겠다. 75년생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87년생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다.



52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64년생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부른다. 76년생 선불리 나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88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41년생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53년생 지인과는 돈거래를 마라. 65년생 생각지도 못한 술과 고기가 생긴다. 77년생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다.



42년생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54년생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라. 66년생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라. 78년생 귀여운 첫인상에 속지 마라.



43년생 절없는 자식들을 용서하라. 55년생 재물이 모이는 재미가 쏠쏠하다. 67년생 작은 잘못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79년생 부모 팔아서 친구 사나.



44년생 답답한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56년생 합리적 이유 없는 호의는 거절하라. 68년생 고집은 적당히 하라. 80년생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렸다.



45년생 기대하지도 않은 월척을 낚는다. 57년생 행운의 여신과 함께 한다. 69년생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8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 때이다.



46년생 앞날에 거칠 것이 없다. 58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70년생 한 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82년생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길다.



47년생 사소한 일로 다투 마라. 59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 71년생 자존심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83년생 이성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